



미국인 불자 종교 정체성 '과연 무엇'

이민용 교수 지적 '한국 영향 과대 평가'는 오해

'구매자·법메뚜기·책방불교도' 등 다양 참선·명상만 관심, 계율 실행엔 무관심

베스트셀러 <만행: 하버드에서 회계사까지>의 저자 헨리 스넵은 우리 사회에서 '특별한 존재'다. 일부에서는 서양의 문물과 문화를 받아들여야만 했던 우리가 불교라는 종교를 통해 거꾸로 그들에게 영향을 준 것이라 생각하며 자부심을 느끼기도 한다. '헨리' 이라는 한 미국인 스넵의 출현은 과연 불교의 확대를 보여주는 것인가?

15일 한국종교문화연구소(이사장 정진홍 서울대 교수) 월례발표회에서 '미국 속의 불교와 불교의 미국화' 발표를 통해 미국 불교의 현실을 해부한 이민용 영남대 객원교수(한국종교문화연구소 연구위원)는 "우리가 그들에게 일방적으로 불교를 전파해 주고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단견이다. 미국은 나름대로 불교를 소화하고 있고, 헨리 스넵은 미국에서 불교

인이 되는 전형적인 패턴을 반영할 뿐이다"며 한국 사회의 특성에 제동을 걸었다.

하버드대학 동아시아학과를 수료하고 미국에서 살고 있는 이 교수의 지적은 자신이 직접 겪은 미국 불교의 현장과 현실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다.

이 교수에 따르면 미국에서 '누가 불교 신자냐'는 질문은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다. 한 마디로 기독교를 믿으면서도 불교 신자가 되고, 유대인이면서도 불교신자로 고백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소위 '아직은 아닌 불교신자(Not-just-Buddhist)' 들인 이들은, 오계를 받고 참선 수행을 정기적으로 실천하고 있으며 일정한 불교단체에서 9년 반이나 활동하면서도 자신을 불교신자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 교수는, 한 사람이 어느 종교의 신자냐고 할 때 제기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종교적 정체성의 문제는 미국 불교신자의 다양한 형태에서 비롯된다고 설명했다.

미국에서 가장 많은 불교신자의 유형은 이른바 '수입 불교(Import Buddhist)'라 불리는 사람들이다. 불교라는 대상물을 놓고 그것이 나에게 필요한 것인지, 어떻게 소유이 되는 것인지 끊임없이 평가해 보며 품목을 고르는 입장에서 있는, '구매자 불교도(Shopper Buddhist)'라고도 할 수 있다. 한 그룹의 참선 수도회에서 다른 형태의 명상 그룹으로 뛰어다니는 '법 메뚜기(Dharma-hopper)'도 비슷한 형태다. '법 메뚜기' 불교신자는 끊임없이 수행 방향을 선택하며 찾아다닌다고 해서 '탐색자 불교인(Seeker Buddhist)'이라고도

한다.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게 '책방 불교도(Bookstore Buddhist)'라 불리는 사람들이다. 어떤 불교 단체에도 참여하지 않고 단지 불교수행과 신앙에 대한 인기 있는 책을 읽고 불교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다. '침실 조영 등 밤의 불교도(Night-Stand Buddhist)'라는 용어를 쓰기도 한다.

이 교수는 "수입 불교는 실수요자의 요청과 필요에 따라 스스로 각자 추구하며 받아들이는 '엘리트 불교'이다"며 "대개 고등교육을 받았으며 백인으로 중상류층을 형성하고 있는 엘리트 불교인들은 개인주의적 수행 명상에만 관심이 집중되어 있고 그것이 불교의 요체라고 생각한다. 이들은 사원 제도나 윤리적 계율의 실행에는 관심이 없다"고 설명했다.

"아마 헨리 스넵도 이 부류에 속하게 될 것이다"고 지적한 이 교수는 "엘리트 불교가 미국 불교인의 대종을 이루고 있는 현실을 볼 때 우리의 헨리 스넵은 한 분만 있는 게 아니고 수백, 수천의 헨리 스넵이 있는 셈이다"고 말했다.

권영진 기자 jenny@buddhania.com



조선 불화의 조형세계 (9)

중후한 장엄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불자들이 가장 친근하게 부르는 명호의 주인공 공 아미타불. 이 부처님은 살아서는 장수하게 하고 죽어서는 극락으로 인도해주는 분이기엔 언제나 인기가 높다. 아미타불화는 고려시대에는 수월관음도, 지장보살도와 더불어 3대 불화 가운데 하나였고, 조선시대에도 꾸준히 제작되었다. 1776년 지리산 천은사에서 조성된 아미타후불탱은 조선후기를 대표하는 불화이다. 이 불화는 여덟 분의 보살, 즉 8대 보살과 함께 등장하는 아미타후존도(阿彌陀九尊圖)의 형식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고려시대의 아미

타은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이 불화에 대한 이념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도 있다. 이 불화에 표기된 사천왕의 이름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내용과 일치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탐을 들고 있는 사천왕의 경우 북방천왕이라 부르는데, 이 불화에서는 서방천왕으로 기록되어 있다. 왜 이러한 차이가 생기는지는 아직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다. 조선 초기 밀교의 영향으로 도상의 내용이 바뀌었다는 주장도 있고, 불화를 그린 화원의 착오라는 주장도 있다.

이 불화가 주목받는 또 하나의 이유는 18세기 후반의 특색이 잘 드러난 명품이라는 점이다. 18세기 전반의 불화와 비교하여 가장 달라진 점은 두텁게 칠한 채색법이다.

18세기 전반에는 가벼운 수채화를 연상할 만큼 색을 얇게 칠한다. 석채(石彩)를 여러 번 칠하지 않아 바탕의 섬유질이 비쳐 보이는 것이다. 반면에 18세기 후반에는 두텁게 여러 번 칠하여 무겁고 중후한 느낌이 든다.

또한 18세기 전반의 채색은 밝고 따뜻한 색조가 두드러져 보인다면, 18세기 후반에는 녹색이나 청색의 사용이 증가하여 보다 무겁고 차갑게 느껴진다.

이 불화 역시 두터운 채색



천은사 극락보전 아미타후불탱(1776년 조성, 보물 924호) 중후한 채색과 명료한 장식성이 18세기 후반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두꺼운 채색법... 무겁고 중후한 느낌 사실 바탕으로 한 명료한 장식성 돋보여

타후존도는 그림의 상단에 아미타불이 화려한 보좌 위에 앉아 계시고 그 무릎 아래 여덟 분의 보살들이 서 있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그런데 천은사 불화에서는 8대 보살과 함께 앞에 사천왕, 뒤에는 석가불, 미륵불, 여러 제자상이 아미타불을 받들고 서 있다. 게다가 화면 아래에는 아미타불을 향하여 등지고 앉은 사리불존자가 진지하게 설법을 듣고 있는 모습까지 덧붙여져 매우 복잡한 구성을 이루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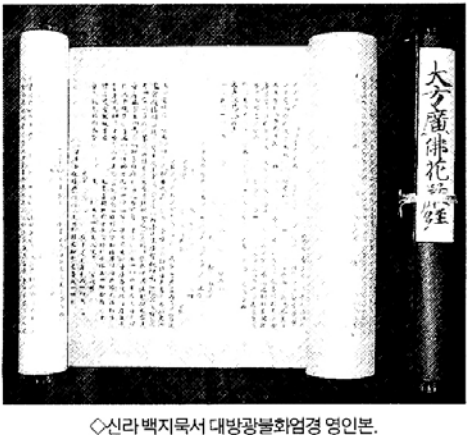
이 불화는 각 삼마다 친철하게 이념을 밝히고 있는데, 이것은 매우 보기 드문 경우이다. 여기에 자세히 써놓은 이름은 조선시대 불화 연구에 도움이 되고

에 녹색의 증가로 중후한 분위기가 화면을 지배하고 있다. 채색은 무거워 보이지만, 보살이나 사천왕을 표현한 장식은 이전 시기 못지않게 여전히 화려하다.

이 불화를 1729년 의겸이 그린 해인사 석가후불탱과 비교하여 보면, 환상을 불러일으킬 정도의 섬세한 장식성과 달리 사실에 근거한 명료한 장식성을 보여준다. 전체적으로 중후한 분위기를 기입에도 제자상의 모습은 자유롭기 그지없다. 짧은 유머 같은 제자상의 모습은 연이어 등장하는 19세기 불화의 특징인 해학적인 자유로움을 예시하고 있다.

경주대 문화재학부 교수

세계에서 가장 오래 된 화엄경 사경인 <신라백지묵서대방광불화엄경>(국보 196호, 호암미술관 소장)의 영인본이 완성됐다. 문화재청은 2년여 작업 끝에 원본과 같은 두루마리(길이 19.9cm 세로 26.9cm) 형태의 필사본 영인본을 전통 한지로 제작해 19일 공개했다.



신라백지묵서대방광불화엄경 영인본.

最古 화엄경 필사본 전통방식 영인

한글 해설 함께 영어 등 5개국어 요약본 수록

의 내용을 필사한 것으로, 신라 경덕왕 14년(755) 화엄사를 창건한 연기법사가 발원, 조성했다. 특히 당나라 측천무후(재위 684~704) 시대에만 쓰인 독특한 한자인 '측천무후자'가 있어 현존하는 화엄경 필사본 중 가장 오래 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화엄(華嚴)의 '화(華)'를 '화(花)'로 표

기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특징. 영인본의 해설본에는 한글 해설과 함께 영어, 불어, 독일, 중국어, 일본어 등 5개국어 요약본을 수록했다. 모두 500부가 제작됐으며, 문화재청은 이 중 300부를 국내 도서관과 박물관, 해외주재 한국문화원 등에 배포할 예정이다.

법주사 대웅보전 삼존불 조성내력 밝혀져

발원문·조성기 등 복장유물 발견

1626년 조성·1747년 개금불사

법주사 대웅보전(보물 915호) 해체 보수 공사 과정에서 이 안에 봉안된 삼존불의 조성 내력을 알려주는 발원문과 조성기 등 복장유물이 다량 발견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6일 열린 제5회 국립박물관 동원학술 전국대회에서 '법주사 대웅보전 삼존불 복장 조사'를 발표한 윤종국 국립청주박물관 학예연구사는 "지난 4월 삼존불의 복장에서 나온 발원문과 조성기 조사를 통해 삼존불은 1626년(인조 4년) 조성됐으며, 1747년(영조 23년) 개금불사를 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삼존불은 <법주사 상방문>(1626년)과 <속리산 대법주사 대웅대광명전 불상기상>(1630년)의 기록을 근거로 1624~1630년 조성된 것으로 추정해 왔다.

비로자나불과 석가모니불, 노사나불에서 나온 조성기는 각각 2장을 이어붙인 두루마리 위에 필사한 것으로, '천계(天啓, 1621~1627년 사용된 명나라 연호) 6년 병

인(丙寅) 3월부터 7월까지 불상 삼존을 만들어 점안하였다"고 적혀 있어 삼존불이 1626년 조성됐음을 알 수 있다. 비로자나불에서 발견된 발원문 역시 "대웅보전에 임진왜란(1592년) 때 불 타 없어진 후 1626년에 불상 삼존을 만들고 1747년에 개금불사를 하였다"는 기록이 분명하다.

윤 학예사는 "발원문을 보면 불상 조성 때는 왕실과 지방 유력자들이 참여하지 않았지만 개금불사에는 사도세자와 혜경궁 홍씨, 병마절도사 심봉양, 삼주목사 이협 등이 시주자로 등장하고 있어 달라진 불교계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삼존불에서는 이밖에 <묘법연화경> <능엄경> 등의 경전과 감지은자수보살계법, 속옷·모시옷, 청동팔엽후령통, 청동후령 등이 함께 나왔다.

우리 나라 3대 불전의 하나인 법주사 대웅보전은 기둥이 부식되고 건물이 휘둘리는 등의 현상이 나타나 지난 해 8월부터 2004년까지 해체 보수 공사가 진행 중이다.

"승기건강비법 신비의효능"

[마·가·목]

산승이 진진 화상으로 인하여 혈액 순환의 장애가 있어 수족이 차고 냉하여 온몸의 마비와 건강의 악화로 고통을 받고 있던 중, 오대산에서 백일기도를 드리고 있던 차, 금강산에서 출가 수도하시던 노스님을 오대산에서 뵈게 되었는데 옛부터 금강산 승가에서 내려오는 마가목의 비법을 노스님으로부터 전수 받아 건강을 되찾게 되었던 바 1988년 11월 6일 오전 6시 40분 산승이 출연 KBS-2TV 건강하게 삽시다. 프로그램에서 불가건강비법 약초기행 마가목을 찾아서 방영이후 전국의 많은 불자님들의 방문과 요청이 있었으나 워낙 희귀목인지라 많은 양을 구할 수 없어 10년이 지난 지금에야 두세분량을 탕재로 하여(한박스 60봉) 한달분을 보시하게 되었습니다.

이 효능은(본초강목, 동의보감) 기록

첫째, 그 성질은 따뜻하여 몸이 쇠약하고 풍습이 해수등을 다스리고 둘째, 흰머리를 검게 하며 두뇌세포를 촉진 통풍, 신경통, 팔다리가 저리거나 허리가 아프고 몸이 차고 냉한 사람에게 좋다.

셋째, 중풍에 특효하며 동맥경화, 풍 예방 및 기력을 돋우어 주어 신장(콩팥)을 튼튼하게 하고 피로를 제거하며 간장을 보호하고 당뇨와 관절염, 고지혈증에 특효하다.

넷째, 불안, 우울, 불면증을 해소하여 골병이 든 아철도 풀어주며 비만체질(지방을 분해하여 살이 빠지다)과 성인병 예방에도 좋다.

다섯째, 심장을 안정시키며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양기를 돋으며 숙취를 해소한다.

"실험사례" 폐 식용유에 마가목 액을 섞었다니 쉽게 경계가 됩니다. 즉, 인명의 근원인 혈액속의 콜레스테롤을 제거하여 피를 맑게 합니다.

상담문의 원종태고 보우국사 열반사지 소설산 왕방 수구암 전화번호 : (031) 585-1502 **석자수 입장**

※ 마가목만 복용하면 위장에 부담이 있으므로 승기의 비법이 있습니다.

시주금은 불사기금에 쓰입니다.

2000년 10월 25일 수요일 KBS 1 아침방송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방영

▶ 불교 사관학교 (제1기 모집, 6개월 단기 출가)

- 머리를 깎지 않고, 절에서 수행. - 매월 1회 외박 가능, 일요일 자유정진
- 고졸 이상
- 나이 30세 미만 - 남자
- 숙식 무료 제공 - 직원 채용시 우선 채용. 본원에서 생활 가능
- 참선 및 불교수행, 경전공부(반야심경, 금강경, 법화경 등)

▶ 외국인 불교대학 (제1기 모집)

- 11월 23일(토). 첫 강의, 모든 외국인 영어 강좌

▶ 출가자 모집 (남행자)

- 민주적 교육 - 개인방 지급.
- 40세 미만, 고졸 이상
- 가장 엘리트 스님 배출 목표 - 현재 20명 배출, 수행 중.
- 수계 후, 공부·수행 모든 뒷바라지

「저거는 맨날 고기묵고」 「길손여행」의 저자 '우학스님(본사찰의 회주) 직접지도

대한불교 조계종 **영남불교대학·관음사** 053-474-8228 TVbuddha.co.kr

신도관리와 사주를 컴퓨터에 맡기세요
韓國易소프트 서울지사 개설

컴퓨터 역학프로그램의 최정상사주대전을 개발한 한국易소프트가 서울지사를 개설하였습니다.

▶ 사주대전(四柱大典)은?

생년, 월, 일, 시 만 입력하면 컴퓨터가 사주 및 운세를 풀이 해설해 내는 전문 역학 프로그램입니다.

사주대전 구성(명리, 주역, 기운, 상명학, 택일, 궁합, 꿈해몽, 부적, 자미, 등) 사찰신도관리 및 중무형성 전산화프로그램의 선두주자 **▶ 금강장사**를 여기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금강장사의 막강한 기능(우편발송, 등표, 위패, 생일축하편지, 등등 800여 가지 출력양식 및 전문회계)으로 손님들의 도량발전에 기여하였습니다.

○ 주 소 : 서울시 양천구 신월3동 48-9 중경빌딩 406호
○ 직 통 : 0502)424-5887 ○ 대 표 : 02)695-8747
○ 팩 스 : 02)695-8757
○ 담당자 손 전화: 011-720-3170
WWW.SAJUSOFT.co.kr

▶ 공동구매 이벤트를 실시합니다.

사주대전과 금강장사를 3개 사찰에서 공동 구매하시면 15%할인
사주대전을 5개 사찰에서 공동 구매하시면 20%할인
금강장사를 5개 사찰에서 공동 구매하시면 30%할인

기 간 : 2002년 11월 1일 - 2002년 12월 31일 까지